

한국 도시근로자가계의 과소비와 영향변수

- 재정비율분석을 중심으로 -

Overspending of Wage-earner Households in Korea

- Application of Financial Ratio Analysis -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교 수 박 명 회

건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부 교 수 이 승 신

계명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배 미 경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kuk University

prof: Park, Myung Hee

Dept. of Consumer Science & Housing, Konkuk University

Associate prof: Lee, Seung Sin

Dept. of Home Management, Keimyung University

Fulltime Lecturer: Bae, Mi Kyeong

〈 목 차 〉

I. 문제의 제기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의 방법

IV. 결과 및 논의

V. 요약 및 결론

VI. 제 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a ratio analysis, which indicates the rate of income to total expenditure, to examine wage-earners' overspending in Korea. We use th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produced by National Statistical Office Republic of Korea and total sample size is 40,691 including households complete income reported. Through the t-test, among 17 expenditure categories, overspenders is likely to spend more on housing, apparel, medical, education, and

leisure expenditures more than non-overspenders significantly. Interestingly, overspenders have more income, but less financial assets than non-overspenders. To analyze the effect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on overspending, ordinary least square is utilized. The results shows that the more educated, larger family size, and older consumer tend to overspend.

The results of study are led into two aspects. First, overspending can be solved by consumer education with efficient financial management practice. Second, overspending may be not solved unless policies in various ways enhance the overall quality of living to lessen each household's budget constraints.

1.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는 1960년대초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후 도시화, 산업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도시의 인구 집중 현상으로 말미암아 도시 소비자인 도시근로자구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상품의 다양화 및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개별가계의 소비생활에 양적 또는 질적인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경제개발 초기에 저축을 미덕으로 여기며, 자산의 증대와 주택마련 중심의 소비생활에서, 1980년대 이후 소비지출액의 양적인 팽창과 소비항목의 다양화 및 소비패턴의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1인당 G.N.P. 수준이 1만 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수준에 적합한 합리적 소비지출의 패턴을 보이기보다는 일부 소득증가에 따른 과소비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과소비의 문제는 소비가 경제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회문제가 된다. 즉 소비는 개인의 가치관뿐 아니라 주변사람들의 반응, 즉 사회경제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개인의 소비행동이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가족생애주기에 따라서, 일생의 한 시점에서의 과소비는 가정의 총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으로서 여겨질 수 있지만(Fan, Chang & Hanna, 1992),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계속적인 과소비로 말미암아 저축이나 다른 형태의 재정적인 목표를 달성하기가 힘들다고 본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과소비는 문제시되어지는데, 과소비는 투자재원의 부족으

로 연결되기 때문에 경제불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80년대 초·중반에 비하여 80년대 말에 도시 근로자가구의 소비지출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이들 가구의 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고(류재술, 1992), 이와 같이 80년대 말에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비성향이 높아진다는 것은 일부 특수계층의 과소비 현상이 일반 도시가계에 까지 일반화된 현상으로 볼 수 있겠다. 최근, 이러한 과소비현상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된 이후, 도시가계의 전반적인 소비행태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몇몇 진행되기는 했지만, 개별 가계의 구체적인 과소비행태에 대해서 조사한 연구는 많지 않다. 한국가계의 과소비행태를 전반적으로 분석하고(류재술, 1992), 과소소비 및 과소비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를 내린 연구논문(백경미·이기춘, 1996; 제미경·백경미, 1991)은 있었으나 개별 가계의 과소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수준이다. 또한 지금까지 과소비와 관련된 연구에서, 과소비에 대한 개념적인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경제학적인 개념으로서 과소비를 이용하고자 한다. 경제학적인 개념으로서의 과소비란 자신의 소득을 초과하는 소비수준으로 정의하고 있다(Lytton, Garman & Porter, 1991; Bae, Hanna & Lindamood, 1993).

본 연구의 목적은 소득에 대한 소비의 비율로서 과소비를 측정하는 재정 비율분석을 적용하는 경제학적 접근을 통해서 우리나라 개별 가계의 과소비 유형을 분석하는데 있다. 즉 과소비가계와 과소비하지 않는 가계를 비교 분석하고 과소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1994년 도시가계연보를 이용하여 개별 가계의 과소비 행태 및 그에 따른 자산보유상태, 소비지출항목별 지출행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과소비의 개념과 측정

경제학적인 개념으로서 과소비란 자신의 소득을 초과하는 소비수준으로 정의되고 있다(Lytton, Garman & Porter, 1991; Bae, Hanna & Lindamood, 1993). 하지만 현재 과소비와 관련된 학술적인 연구나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한 실제 과소비에 관한 보도에서, 과소비에 대한 개념적인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아서, 과도소비, 과시소비 등의 소비행태를 혼돈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백경미·이기춘(1995)의 연구에서 과시소비란 제품, 서비스의 성장성을 통해 지위를 획득하거나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타인에게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제품, 서비스를 구매,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한편 제미경·백경미(1991)의 연구에서는, 과소비를 과도한 소비로 규정하였고, 과시적인 소비는 과소비를 초래하는 중대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과소비로 정의되는 과도함의 기준을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으로 나누었다. 개인적인 과도함은 개인이나 가계의 소득에 비해 소비가 도를 넘침을 의미하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볼 때 과도함이란 그 사회의 경제체제 및 경제수준에 비추어서 특정개인의 소비가 너무 과도한 수준을 나타낼 때 과소비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에서는 개별가계의 과소비에 대한 경제적 접근을 논하지는 않았으나, 과소비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정의한 측면이 본 논문의 과소비에 대한 경제적인 분석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과소비를 측정한 연구들을 보면, Lytton, Garman과 Porter(1991)는 소득에 대한 소비의 비율은 재무상당자들이 가정의 재무상태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이 비율을 측정함에 있어서, 저축과 투자부문을 제외한 총소비지출의 합계와 가처분 소득을 사용하여

는데 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는 과소비하는 가계로 간주되며, 이러한 가계의 경우 크레딧이나 저축을 사용하여 초과지출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Devaney(1993)의 연구에서는 재정적 비율을 사용하였는데, 이 비율은 재무상당을 필요로 하는 특별가계의 재정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계의 재정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도 유용하다고 하였다. 이 비율은 재정복지를 분석하고 토의하는 출발점이 되며, 각 가계의 재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저축과 투자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측정도이다. Lytton, Garman과 Porter(1991)는 비율은 종래 재정적인 척도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였는데, 예를 들면, 소득에 대한 소비의 비율은 소비량의 증가 자체보다는 더 의미있는 정보를 준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Lytton의 이론적인 틀을 기반으로 Bae, Hanna와 Lindamood(1993) 미국 노동부 산하의 Consumer Expenditure Survey를 사용해서 실질적인 각 개별 가계의 과소비행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는, 39% 가계가 과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실질소득에 비해 총지출을 초과하는 가계가 많아 가계재무관리의 절실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하지만, 소득에 대한 소비비율의 적정수준에 대한 정보는 없으며 이에 대한 경제학적인 이론제시가 시급하다.

2. 가족생애주기 모델과 과소비

가족 생애주기 모델은 과소비를 합리화하는데 기초를 제공한다. 이 모델은 소비자가 일생전반에 걸쳐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비한다는 가정(Ando & Modigliani, 1963)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가족생애주기 모델에서는 순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고 소비자가 자신의 수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현재 소비액과 미래의 소비총액이 같다고 가정할 경우, 적정수준의 연 소비액은 일생전반의 평균소비액과 동일한 것으로 규명된다. 한편, Friedman의 향상소득가설에서는, 올해의 소득이 가족생애주기 평균소득에 비해 적을 경우, 소비자는 과소비를 하게 된다. 반대로, 올해의 소득이 가족생애주기 평균소득에 비해 많

을 경우 과소비 한 년도의 빚을 상환하기 위해서, 또는 미래의 저소득을 대비해서 저축을 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가족생애주기 모델에 입각해서, 매년 소득수준의 변화로 말미암아 많은 가계의 경우 상당한 양의 과소비를 하게 된다.

3. 과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1) 소득

Bae, Hanna와 Lindamood(1993)의 연구에 의하면, 소득수준이 개별가계의 과소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한편, 류재술(1992)의 연구에서는 80년대말 도시근로자의 과소비 현상을 저축심리가 위축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일종의 기현상으로 보았으며, 소득구성항목 가운데 실질소득이 아닌 명목소득이 일시에 급상승함으로써 소비자가 그들의 소득수준을 과대평가한다고 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1982~1990까지 도시근로자의 과소비현상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던 평균소비성향이 봉급자 가구의 경우 88년 89년에 소비성향이 0.75, 0.78로 크게 높아지고, 노무자의 경우도 0.75로 높아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와같이 80년대 경제 전반적인 과소비 행태를 분석한 연구에 이어, 본 연구는 개별가계의 과소비 행태를 가계 내적인 요인들 중에서 소득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저축액과 비상금

저축은 특정시기의 순자산의 증가분으로서 정의된다. 미국 가계의 경우 가장의 연령이 25세인 경우, 순자산이 1983년부터 1986년까지 38%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Devaney, 1993). 이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과소비가 순자산의 감소와 관련된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무상담자들이 소비자는 실업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에 대비해서 항상 자신의 현소득을 6개월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저축액을 보유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가계의 경우 1990년 Consumer Expenditure Survey를 사용했을 때, 단 20%의 가계만이 6개월 비상금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었다(Hanna, Fan, Chang & Bae, 1993). 미국 가계의 과소비를 측정하는 논문에서는(Bae, Hanna, & Lindamood, 1993), 가계의 현재 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산을 소모했을 경우, 과소비로 간주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제적인 위기에 처했을 경우, 자산과 비상금이 없는 가계는 빚을 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물론 과소비로 인정된다.

한국에서는, 실질적으로 80년대말에 지가상승율이 연 30% 내외로 폭등했고, 이러한 지가상승으로 주택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급등했다. 또한, 도시가구는 결혼 이후 10년-14년이 지나서야 85.6%가 주택을 마련한다고 한다. 이들 가구가 상당기간의 저축을 통하여 주택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가상승에 따른 저축의 상대적 가치하락으로 주택마련 기대무산효과가 일어나고 이에 따른 국민의 저축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이것이 곧 과소비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류재술, 1992). 실질적으로 80년대말 총수입액의 증가율이 25% 안팎으로 상승하였고, 이러한 현상이 소비심리를 자극하는 동시에 과소비행위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3) 인구통계학적인 변수

Bae, Hanna와 Lindamood(1993)의 연구에서 과소비하는 가계와 과소비 하지 않는 가계간의 차이점을 서술했다. 과소비하는 가계는 과소비하지 않는 가계의 평균수입(\$37,357)의 절반의 수준(\$16,946)을 유지하며, 유동자산은 과소비하는 가계가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5,510 대 \$15,640). 과소비하는 가계와 그렇지 않는 가계간의 총소비지출은 거의 비슷하게 보였으며, 지출항목 중 의료비와 기타비에서 과소비하는 가계가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더 많이 과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과소비와의 관계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며, 독신 가계의 경우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과소비확률이 높아지고, 가족수가 4명 이상인 경우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과소비가 감소하는 것이 보여졌다. 가족수와 과소비와의 관계에서, 1인 가계에서 4인 가계까지 과소비확률이 증가하다가, 그 이상인 가계의 경우 과소비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2-73년의 Consumer Expenditure Survey를 이용해서 소비와 소득간의 비율을 측정된 연구(Danziger & et al., 1982-83)에 의하면 이 비율은 연령과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장의 연령이 35세 미만인 가계와 71세 이상인 가계가 중년가계에 비해 소득에 대한 소비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자의 두 연령층은 소득의 대부분이 저축보다는 지출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Ⅲ. 연구의 방법

1. 변수의 정의

a) 과소비율

일반적으로 저축을 목표로 하는 가계의 경우 소득을 100% 다 소비하지 않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소비를 측정하기 위한 소득 대비 가계 지출 비율 변수를 선택하여 총 소비지출액을 소득으로 나눈 다음 이 소득대비 가계지출비율이 1.0 보다 클 경우를 과소비로 정의한다.

b) 소득변수

도시가계연보에서의 가계의 총수입으로서, 소득, 기타수입 및 전기 이월금을 포함하는데,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기타 소득으로 나뉘어 지는데, 여기서 기타 소득은 이자 및 배당금 임대료, 사회보장수혜, 수증 및 보조 등을 포함한다. 도시가계연보 자료 중 노무자 가구의 소득이 잘 보고되지 않은 연유로,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만을 다루게 되어 기타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포함한다.

c) 가계지출

도시가계연보에 나타난 지출항목은 총지출, 가계지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그리고 기타 지출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을 합한 가계지출을 실질지출로 간주하여, 회귀분석에서는 이 가계지출을 사용하였다.

d) 순자산

가계내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삭감한 것이 순자산이며, 한국가계의 자산규모가 과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 순자산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들의 정의와 측정에 관하여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2. 변수 측정

(1) 소득대비 가계 지출 비율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Lytton, Garman와 Porter(1991)이 정의한 소득에 대한 소비의 비율(Ratio)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일정 기간의(한달 내지는 일년) 총 소비지출을 가처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그들이 사용하는 소비 지출의 개념은 일반 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개념과는 구분되는 것이며, 사실상 한 가계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경제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출이(spending) 소비지출(consumption)보다 더 적합한 단어이다. 지출은 현재 수입뿐만 아니라, 크레딧이나 저축에서 인출되는 부분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다. 지출이 현재 수입을 초과하게 되면, 가계의 순자산은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부채는 증가하며, 자산은 감소하게 된다. 즉

$$\text{비율} = \frac{\text{총 소비지출}}{\text{가계 소득}} \text{로 표시된다.}$$

소득을 이용한 비율 분석은 그 해석상에서 주의해야 하는데, 각 가계의 재무특성에 따라서 특정한 기간의 소득이 각각 다른 복지수준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소득대비 가계지출 비율이 1.0을 넘어 과소비를 하는 것으로 간주된 경우, 실질적으로 다른 소득원을 가지고 있는 가계가 있다면 그들의 장기적인 재무 관리에 적합한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다른 경우, 소득대비 가계지출 비율이 1.0을 넘지 않아 과소비를 하지 않는 가계로 보일지라도, 이미 많은 부채가 있는 경우 재무 상태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잠재적인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소득대비 가계지출 비율 분석을 사용하여서 개별 가

계의 재무 상태를 가늠해 보고, 더불어 각 가계의 자산구조나 부채상태, 그리고 각 지출항목의 평균값을 과소비하는 가계와 과소비하지 않은 가계로 나누어 비교 분석해 보았다.

3. 자료

1994년도 도시가계연보를 이용해서, 개별가계의 소비구조를 분석한다. 총가구수는 64,065이며, 그중 근로자 가구는 40,691인데, 도시가계연보에는 근로자의 수입만이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근로자 가구의 과소비실태만을 분석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표본의 수가 40,728로 감소되었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각 표본을 과소비가계와 과소비를 하지 않는 가계로 분류하여 t-test를 통하여 각 비목들을 비교하였다. 또한 과소비의 영향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이중 로그모델(double log model)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모델

소비지출에 대한 선행의 연구에서는 이중 로그모델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잘 맞는 것으로 보여져(Massel & Heyer, 1969; Dardis & Lehfeld, 1981; Lino, 1990; Norum, 1989),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소득대비 가계지출 비율과 독립변수 중의 하나인 소득을 모두 로그 형태로 두 변수간의 관계를 보기로 한다.

$$\log \rho = \alpha + \beta_1 \log \chi_1 + \beta_2 \chi_2 + \beta_3 \chi_3 + \beta_4 \chi_4 + \dots + \epsilon$$

에서 각각의 변수는 다음과 같다.

ρ = 소득에 대한 소비의 비율

χ_1 : 소득 수준 χ_2 : 부채 χ_3 : 저축액 χ_4 : 연령

χ_5 : 연령*연령 χ_6 : 가족원수 χ_7 : 수입원수

$\chi_8, \chi_9, \chi_{10}$: 교육수준 가변수(중·고등학교, 초전문, 대학 및 대학원)

$\chi_{11}, \chi_{12}, \chi_{13}$: 자가소유 가변수(무상주택, 전세, 월

세)

위의 모델에서 각각의 모수는 독립변수 변화량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량으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 질 수 있다.

$$\beta_1 = \frac{\partial \log \rho}{\partial \log \chi_1} \quad \beta_i = \frac{\partial \log \rho}{\partial \chi_i} \quad i = e \dots n$$

여기서 β_1 은 이중 로그 모델이므로, 종속변수 ρ 변화량분의 독립변수 χ 변화량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β_i 은 곧바로 소득탄력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쓰면

$$\beta_1 = \frac{\partial (\log \rho_1 - \log \rho_2)}{\partial (\log \chi_1 - \log \chi_2)}$$

IV. 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근로자의 세금을 제외한 실소득의 평균은 167만원선이며, 총지출의 평균값은 125만원 선으로 실소득의 평균치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비율은 총지출을 가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비율이 1보다 크면 과소비를 하는가계(over=1), 1보다 작으면 과소비를 하지 않은 가계(over=0)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변수 over의 평균값은 0.183으로서, 표본의 18%가 과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보았으며, 표본의 평균 순자산은 57만원으로 적게 나타났으나, 표준편차가 크게 보여짐으로써 각 가계의 자산의 규모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이 보여졌다. 가장의 평균연령은 39세였고, 수입이 있는 평균 가족원수는 1.48로 나타나 평균 수입원수가 1명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였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이 전체 표본의 11%, 중·고등학교인 경우 57%, 그리고 대학이상인 경우는 25%를 이루고 있었다. 자가소유 상태별로 보면 표본의 45%가 자가를 소유하고 있었고, 47%는 보증세나 전세의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40,728

변 수	측 정	평 균	표준편차
총 지출 (원)	소비지출+비소비지출	1,250,120	1,076,175
소 득 (원)	가계소득	1,672,346	1,048,777
비 율	총지출/소득	0.183	0.39
순 자 산 (원)	총자산-부채	573,005	2,415,279
저 축 액 (원)	현재 보유한 저축액	663,629	1,657,113
연 령 (세)	가장의 연령	39.04	10.29
가족원수 (명)	가족 구성원수	3.75	1.16
수입원수 (명)	수입이 있는 가족원수	1.48	0.67
교육수준 (초등학교)	omitted	0.11	0.32
중·고등학교	가변수(0,1)	0.57	0.49
전문대	가변수(0,1)	0.06	0.25
대학 및 대학원	가변수(0,1)	0.25	0.43
자가소유 (자가)	omitted	0.45	0.49
무상주택, 사택	가변수(0,1)	0.03	0.18
보증세, 전세	가변수(0,1)	0.47	0.49
월세	가변수(0,1)	0.05	0.21

형태로 주거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소득과 지출의 분포

〈표 2〉에서는 소득과 지출에 관련된 변수들(총소득, 근로소득, 총지출, 식비, 외식비 등)의 세부지출 항목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보여준다.

지출의 세부항목은 세금액까지 모두 18항목으로 나뉘어 지는데, 평균지출액은 식비, 교육비, 교통비, 의료비순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교육비의 평균치는 약 10만원 정도이며, 본 연구에서 교육비로 정의한 항목에는 순수 공납금과 학원비, 문구류를 포함시키고 그 외의 잡지나 교양도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표본가계의 평균 외식을 제외한 식비는 33만원이었으며, 이에 비해 외식비 평균은 9만 2천원 가량으로 식비에 비해 30%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90년대 초반의 도시가계연보에서 나타난 식

비에 대한 외식비 비율(25%) 보다 증가된 것으로 보여진다. 통신비의 평균은 2만원을 넘어, 일반전화 이용 이외의 기타 통신망, 예를 들어서 호출기, 컴퓨터 인터넷 등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문화 레저비는 평균 8만원정도로, 소비지출 항목중에 비중이 큰 것으로, 이는 여가에 관한 소비자들의 관심증가와 여가로 인하여 가계재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욕구의 증가로 해석된다.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의 평균비용은 5만 5천원이며,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나 내구재의 경우 상당수의 소비자가 월부채를 도입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조사비는 평균 4만원가량으로 보여지며, 현대사회에서 소비지출항목 중 점점 비중이 증가하는 항목중의 하나이고, 연령별 가구주의 다른 특성별로 경조비의 지출양상이 다르게 분포될 것이며, 경조비 지출에 대한 연구가 전망된다.

〈표 2〉 항목별 평균, 표준편차

항 목	평 균	표준편차
순자산	759858.40	2023891.56
소득	1672346.78	1048777.72
총지출	1249466.87	1126539.40
세금 및 공과금	138288.61	297806.03
식비	330474.63	207256.51
외식비	92288.75	123295.95
주거비	45807.36	277148.17
관리, 광열, 수도	45798.38	38403.83
피복비	87269.17	131870.30
의료비	55397.30	131973.32
용모유지비	28588.44	28542.49
교육 및 육아	99598.89	223661.65
문화 및 레저비	53089.84	168932.87
교제비	14452.41	58051.51
공공교통비	32448.11	46503.65
개인교통비	71657.81	597974.50
통신비	20452.10	19871.91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	55719.08	237810.80
특별비(경조사비)	39537.73	202578.54
기타비	109656.47	138925.63

3. 과소비와 관련된 가계재정 상태분석

총지출 대 실소득의 비율로 보아 과소비하는 가계와 과소비하지 않은 가계의 재무구조를 분석한 것이 〈표 3〉에 나타나 있다. 총자산과 총부채를 비교해 볼 때, 두 그룹간의 t 검정은 유의하게 나타나, 과소비를 하는 가계는 총자산이 월평균 135만원인데 비해, 과소비를 하지 않은 가계는 62만원이었다. 본 연구에서 부채는 주택관계 빌린 돈, 월부 및 외상 그리고 기타 빌린 돈 모두를 포함하는데, 과소비하는 가계의 경우 월평균 47만원으로 비과소비 가계의 경우 12만원에 비해 상당한 부채의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두 그룹간의 소득과 총지출을 비교하면, 과소비를 하지 않은 가계가 월평균소득 176만원으로 과소비를 하는 가계의 경우 129만원에 비해 훨씬 많으며, 총지출의 경우 과소비를 하는 가계는 월평균 195만원

으로 과소비를 하지 않은 가계의 109만원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축액 보유면에서 과소비 하는 가계의 경우 116만원, 과소비 하지 않은 가계의 경우 5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두 가계의 앞에서 언급한 자산의 현격한 차이와 또 저축액 보유의 차이를 볼 때, 과소비를 하는 가계가 소득이 외의 다른 수입원이 많은 것에서 결국 총소비지출이 현격히 많게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두 그룹 모두 현물소득에서는 비슷한 수준이었고 전이월급은 과소비가계가 31만원, 비과소비 가계가 28만원 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의 세부항목의 경우 18항목 중 모두 두 그룹간의 t검정의 결과가 유효하게 나타났으며, 18항목 모두에서 과소비하는 가계가 비과소비하는 가계보다 지출액이 많은 것으로 보였다.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면, 월평균 납부하는 세금액은 과소비 가계가 21만

〈표 3〉 과소비 하는 가계와 과소비 하지 않는 가계의 비교 분석

	과소비가정	과소비하지 않는 과정	t test
총 자산	1355231.31	621359.83	-21.93*
총 부채	466862.64	122002.71	-10.38*
소득	1292674.43	1762238.94	39.66*
저축액	1161145.64	547938.69	-23.25*
현물총액	59926.05	58588.95	-0.72
이월금	319700.90	283433.66	-8.16*
총 지출	1949775.97	1087919.06	-38.35*
세금 및 공과금	212580.13	139242.92	-13.66*
식료품비	361104.38	315091.26	-14.06*
외식비	104966.29	94050.40	-5.47*
주거비	87407.90	31063.71	-13.08*
관리, 광열, 및 수도	47807.93	43055.50	-9.59*
피복비	115401.92	79494.24	-16.00*
의료비	88141.64	45928.63	-18.16*
용모유지비	30618.28	27672.58	-7.86*
교육 및 육아	180525.38	70507.76	-23.95*
문화및 레저비	149822.68	59075.63	-20.14*
교제비	198736.25	127374.44	-6.37*
공공교통	40957.37	32855.40	-10.29*
개인교통	263999.70	139790.96	-14.83*
통신	20955.00	18722.48	-8.79*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	127221.87	38994.37	-15.45*
경조비	44613.72	29305.99	-12.36*
기타비	163164.82	110238.55	-11.79*
순자산	888368.67	499357.11	-8.54*

원으로 비과소비 가계의 14만원보다 많고, 식비, 외식비, 광열수도비, 용모유지비, 공공교통비, 통신비, 기타지출비에서도, 과소비 가계(그룹1)가 비과소비 가계(그룹2)보다 다소 높은 지출액을 보였다.

두 그룹간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지출항목으로는 주거비(그룹 1: 그룹2=8만원 7천원: 3만원), 의복비(11만원: 7만원), 의료비(8만원: 4만5천원), 교육비(180만원: 70만원), 문화 및 레저비(14만원: 5만9천원), 교제비(19만 8천원: 12만 7천원), 개인교통비(26만원: 3만원)로 두 그룹간의 소비생활의 질적인 차이도 보여진다. 과소비를 하는 가계의 경우 생활필

수품에서도 다소 많은 지출이 있었으나, 교육비, 문화레저비, 의료비, 개인교통비와 같은 생활의 질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소비항목에서 두드러진 지출액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총 지출에 대한 실소득의 비율로 나누어진 두 그룹이 소비생활의 패턴이 유의하게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그룹의 월평균 소득은 과소비를 하지 않는 가계가 더 높는데 반하여 과소비를 하는 가계의 현저한 소비지출수준은 그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저축액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상당액의 지출이 현재 소비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에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과소비를 하지 않은 가계의 경우, 현재 실질소득은 높은 편이나, 자산과 저축의 미약함으로 질적인 소비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현 소비생활은 소득 보다는 자산과 저축의 상태에 더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볼 때, 이러한 자산과 저축액의 축적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가 더 필요한 것을 암시하고 있다.

자산과 소득에 관한 연구에서(김종진, 1992; 임동모, 1994; 김관영, 1980) 소득계층별로 자산의 규모를 분석했는데, 자산의 소유가 많을수록 소득계층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자산과 소비지출간의 관계에 관한 논문에서는(양세정·강미나, 1995), 토지자산과 가계소비지출간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금융자산과 가계 총소비지출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실질소득과 자산을 따로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말미암은 소득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또 지가상승이 큰 폭을 보이는 80년대말의 자산규모를 측정함으로써, 토지자산의 상대적인 가계 소비지출, 소득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대두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과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는 소득에 대한 소비지출의 비율로서, 이 비율변수가 커질수록 과소비를 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변수로는, 가계의 월수입, 자산, 가장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의 종류, 저축액, 부채수준, 수입원수, 자가소유상태를 고려하였다 <표 4>. 총자산, 그리고 부채를 감한 순자산을 독립변수로 포함시켰으나 그 유의도가 낮았고, 가계부채만을 포함시켜 보았을 때, 유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소비지출 연구에서(심영, 1990), 부채가 가계의 소비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 것과 동일한 결과로 가계가 안고있는 부채부담은 단순한 소득감소의 결과만을 초래하지 않으며, 부채상환은 소비지출 비목들에 대한 가계의 통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1) 소득의 영향

소득과 비율간의 관계를 보면, 다른 변수들이 통제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서, 소득이 높을수록 과소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앞에서 언급한 과소비하는 가계와 과소비 하지 않은 가계간의 소득수준을 비교한 것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β_1 이 -0.4672로 소득과 비율간의 반비례관계를 볼 수 있고, 소득이 1%감소시 비율이 0.46%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로그 모델에서 회귀계수는 소득탄력성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에, 비율은 소득에 비탄력성을 띠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과소비율이 소득의 변화에 따라 적은 비율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과소비를 하는 가계의 경우 소득수준은 낮을지라도, 총지출은 현격히 높아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액을 자산과 저축이나, 월부 및 외상의 형태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상대적으로 과소비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계는 소득이 높은 반면 비축해 놓은 자산이나 저축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소득과 비율간의 관계는 부적이지만 결국 과소비의 비율은 소득보다는 자산과 저축액에 비례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2) 부채의 영향과 저축의 영향

회귀분석에서 부채와 비율간의 관계는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소비의 비율이 높은 가계일수록 부채가 더 많은 것으로 보여졌다. 이 결과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표 3>, 과소비를 하는 가계가 그렇지 않은 가계에 비해 월평균 부채가 더 많은 것과 일치한다. 회귀분석에서 쓰여진 부채에 관한 변수는 월부 및 외상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타 빌린 돈은 포함하지 않아 그 유의정도가 더 정확하게 나온 것과 관계가 있다. 실지로 총부채액을 포함시켰을 경우 유의도가, 부채의 일부를 포함시켰을 때보다 낮았다. 즉 과소비를 하는 비율과 월부 및 외상액과의 관계가, 다른 모든 빚을 포함한 것보다는 더 정확하게 분석되어지고, 그 관계 또한 정적인 것으로 되어졌다. 이것은 과소비를 하는 가계가 자신의 자산과 저축액을 감안하여 과소비를 하지 않은 가계보다, 월부로

〈표 4〉 과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변 인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소득	-0.46	0.00411319	-113.597*
부채	0.000351	0.00000001	58.987*
저축액	5.16 ⁸	0.00000000	46.708*
연령	0.022	0.00141899	15.817*
연령 ²	-0.0002	0.00001669	-12.788*
가족원수	0.054	0.00193373	27.925*
수입원수	-0.0409	0.00329222	-12.439*
교육수준별(기준변수=초등학교졸)			
중·고등학교	0.120	0.00713264	16.887*
초대졸업	0.184	0.01063903	17.376*
대학 및 대학원	0.262	0.00815132	32.234*
자가소유 상태별(기준변수=자가)			
무상주택	-0.099	0.01131740	-8.788*
보증세, 전세	-0.105	0.00434197	-24.369*
월세	-0.060	0.01192130	-5.100*
상수	5.49	0.05811247	94.521
R square	0.3428		

* P < .05

지출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저축의 영향을 보면 과소비의 비율이 높을수록 저축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과소비를 하는 가계가 저축액의 보유로 인한 소비지출액의 증가를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산 중 동산의 형태인 저축만을 포함시킴으로서, 토지자산이나 그 밖의 금융자산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기존의 연구에서 토지자산이 실질 소비항목에 영향을 미치며, 금융자산은 상대적으로 소비지출항목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양세정과 강미나, 1995),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계연보의 개별가계 자산보유에 대한 실태파악의 한계점으로 총자산을 포함시켰을 경우 유의도가 낮은 것으로 보여졌다.

(3)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들의 영향

연령, 가족원 수, 수입원 수, 교육수준, 자가소유상태의 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과 과소비비율간의 관계는 곡선관계로 설명이 된다. 일반적으로 소비지출연구에서는, 연령과 총지

출간의 관계를 볼 때,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총지출액도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보통은 45세에서 50세 정도의 지출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이후는 연령과 총지출액의 관계가 부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연령과 과소비비율간의 관계도 일정시점까지는 비례하며, 그 이후에는 반비례하는 것으로써, 그 전환점이 되는 시기가 과소비의 비율이 가장 높은 시기로 가정된다. 연령의 1세 증가에 따라서 과소비비율이 0.02%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하지만, 연령의 제곱을 첨가했으므로, 어느 한도의 연령을 넘은 후 과소비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과소비 비율과 가족원 수의 관계는 정적으로 나타났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가족원 수의 증가에 따라서 과소비비율이 0.054% 증가하는 것으로서, 가족이 많은 가계가 적은 가계에 비해 과소비비율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입원 수와 과소비비율간의 관계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과

소비비율이 0.04%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입원의 수가 많은 가계일수록 과소비 비율은 감소하는 것은 실질소득의 증가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교육수준이 높은 가계일수록 과소비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과소비비율을 살펴보면, 비교수준이 되는 교육수준 가변수 항목은 초등학교로, 교육수준의 다른 항목의 회귀계수를 볼 때, 가장이 초등학교만 나온 경우보다 그 이상의 교육을 받은 가계의 과소비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Bae, Hanna, & Lindamood(1993)의 미국 가계의 과소비실태 분석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교육수준이 높은 가계일수록 크레딧이나 다른 수입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서 지출의 폭이 크게 되는 연유일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연구에서는 소득계층별로 구분해서 교육수준의 영향을 분석한다면, 교육수준과 과소비 비율에 대한 더 명확한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계일수록, 월세나 전세에 거주하는 가계에 비해서 과 소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보다는 부채가 가계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부채는 단순히 소득을 감소하는 것에서 확장되어 소비지출 항목에 대한 통제력과 깊은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감안할 때,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가계의 거주상환해야 할 부채가 더 많다면 과소비 비율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여겨진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소득을 초과하는 소비수준을 과소비로 정의하는 경제학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개별가계의 과소비를 비율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1994년 도시가계 연보를 사용했으며, 총 표본 수는 근로자 가계만을 포함한 40,728이었다.

과소비하는 가계와 비과소비가계를 비율이 1.0에 기준을 두어 나누어 두 그룹간의 소비지출 패턴의 상이점을 t 검정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로는, 과소비하는 가계의 자산과 부채 모두 비과소비 가계에 비해 많았으며, 총지출 역시 과소비를 하는 가계가 더

높았다. 소득의 경우는 예외로 과소비를 하지 않은 가계가 월등히 높았으며, 이것은 실지로 과소비를 하는 가계의 자산규모가 큼과 동시에 소득은 낮은 것으로서, 과소비를 하는 가계의 경우 초과된 소비액을 자산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비지출 항목별로 보면, 식비, 외식비, 광열수도비, 용모유지비(개인 관리비), 공공 교통비, 통신비, 기타지출비에서도 과소비하는 가계의 평균지출액이 비과소비 가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소비를 하는 가계의 경우 교육비, 문화레저비, 의료비, 개인교통비와 같은 생활의 질을 나타내는 항목에서의 지출이 큰 것은 과소비 가계와 비과소비 가계간에 소비생활 패턴의 역력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겠다.

이러한 과소비율에 미치는 영향변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는 가장의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원수가 많을수록, 수입원수가 적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가계가 과소비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소득과 과소비는 부적 관계로 나타났고, 부채와 저축액은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나 회귀계수의 수치가 낮아 영향력이 극히 미약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 연구결과를 보면, 과소비하는 가계의 특징은 소득보다는 자산의 규모가 많았으며, 구체적으로 소비지출 패턴을 보았을 때, 생활의 질이 과소비를 하지 않은 가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가계의 과소비 현상은 자산의 규모가 많은 가계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동기에서 과소비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실질소득의 증가가 과소비를 창출하지 않은 것은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금융자산보다는 토지자산 형태의 자산증식의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근로소득은 낮으나 축적해 놓은 자산을 이용하여 과소비를 행하는 가계가 많은 것은, 90년대 초까지 한국경제의 비정상적인 인플레이 현상을 실감나게 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과소비현상을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계속적인 과소비로 말미암아 저축이나 다른 형태의 재정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과소비는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경제불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소비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중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결과, 근로자 가구의 18%가 과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질소득을 좀더 세분화하여 세금이나 다른 공제액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과소비비율은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제미경·백경미(1991)의 과소비에 관한 연구에서 제안한 과소비 방지대책으로는 소비자측면에서는 가치관의 확립이 요구되며 정부측면에서는 과소비 억제에 위한 상품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며 대중매체의 측면으로는 과소비를 조장하는 프로그램을 지양하는 등의 논의를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한국 가계의 과소비 현상을 단순히 소비품토의 바람직한 조성이 필요한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 경제 전반의 구조적인 맥락에서 과소비 현상의 원인을 유출할 수도 있다고 본다. 전자의 경우 개별 가계의 소비지출 형태, 소득, 자산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계내의 효율적인 재무관리를 도울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는 소비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돕기 위한 공공정책이 마련되어서 교육비를 비롯한 그 밖의 소비지출 항목에 개인의 과다한 지출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저축을 증가시키고 가계투자를 장려하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적절한 소비패턴, 저축율을 장려하는 재무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이 자산의 소득수준과 가계의 단기·장기 목표에 적합한 소비생활을 권장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

VI. 제 언

소비자 교육을 통해서 과소비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 측면에서 규범적인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 최적의 저축을 장려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소비지출의 적정선을 제시해 주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이 실질 소비자에게 유의한 정보를 줄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과소비를 하는 양상을 비추어

볼 때에, 과소비는 가계의 무질서한 소비형태로 해석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또한 소비자 교육측면에서 반드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한국의 가계가 생활의 향상에 따라 소비의 질적인 면을 추구하는 양상으로 과소비를 이해한다면, 그리고 자산의 규모가 많은 가계가 과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에,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다는 사회전체의 복지의 측면에서 과소비를 방지하는 대책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 고소득층의 과대한 소비보다는, 개별 가계의 자신의 실 소득을 초과하는 소비지출로서 초점을 두었고, 이러한 의미에서 과소비를 하는 가계는 전체 표본의 18%에 달했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소득변수에 대한 측정이며, 세금이나 그 밖의 공제액을 전면제외한 소득을 산정한다면, 과소비를 하는 가계의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소비를 지양하기 위한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진다.

Davis와 Wever(1990)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가계 중, 단 57%만이 예산을 수립하고, 가계부채를 적고, 실제소비와 예산을 비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무관리를 하지 않고는 대부분의 가계가 과소비를 하는 것이 불가피 하게 된다. Davis 와 Carr(1992)에 의하면, 단 13%의 미국 가계가 가계재무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적어도 일년 이상), 이러한 재무관리의 노력없이, 많은 가계가 과오로 과소비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생활주기 이론에 비추어 볼 때, 일생의 어느 시점에서의 과소비는 가계의 총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과소비에 관한 연구 또한 다년간의 소비지출, 소득과 함께 분석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행해진 비용분석은 재무상담사들이 주로 많이 도입하는 것으로서, 소비지출에 대한 소득비율, 자산에 대한 소득비율, 저축액에 대한 소득 등 여러 가지 다른 변수를 도출해 내어 가계의 효율적인 재무관리에 적절한 상담역할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 가계의 소비생활은 단기적으로 분석되었을 때에 지극히 제한된 정보를 제공해 주므로, 장기적인 소비생활을 가

계의 단기별, 또는 장기별 계획에 알맞게 설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재무상담자는 미래소비에 대한 적절한 비율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하고, 가계의 특성이 변화함에 따라서 최적의 비율을 소비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 한국의 가계재무관리도, 선진국의 형태로 복잡해지고 있으며, 실제로 자동차나 내구재 구입뿐만 아니라, 주택을 구입할 때에도 은행의 융자를 통한 할부제가 도입되었다. 효율적인 재무관리가 가계의 총효용에 미치는 막대한 결과를 비추어 볼 때에, 이렇게 복잡해진 가계 재무구조를 전문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재무상담사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도 볼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 1) 김관영, "가계 자산 축적경로에 대한 고찰", 한국개발연구, 11(3), 1989.
- 2) 김종천, "우리나라의 소득 및 자산분배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1992.
- 3) 류재술, "80년대말 도시근로자 가구의 과소비행위와 그 성격에 관한 연구 -특히 80년대말 과소비적 특성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3(2), 1992.
- 4) 백경미·이기춘, "도시주부의 과소비성향에 관한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1996.
- 5) 심영, "가계 부채가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4(2), 1993.
- 6) 양세정, 강미나, "자산이 가계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1995.
- 9) 임동모, "한국의 소득 및 부의 분배 문제의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1994.
- 10) 제미경·백경미, "과소비문제에 관한 고찰", 인제논집 7(1), 1991.
- 11) Ando, A. & Modigliani, F, "The life-cycle hypothesis of saving", American Economic Review, 53(1), 1963, p 55-74.
- 12) Bae, Hanna, & Lindamood, "Pattern of Overspending in U.S. Household"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4, 1993, p 11-30.
- 13) Chang, R, & Lindamood, S, Factors related to the risk of household income variability,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4, 1993, p 47-66.
- 14) Danziger, S. Van Der Gaag, J., Smolensky, E. & Taussig, M., (1982-1983). "The life-cycle hypothesis and the consumption behavior of the elderly", Journal of Post-Keynesian Economics, p 208-227.
- 15) Davis, E. and Carr, R, "Budgeting practices over the life cycle",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3, 1992, p 3-16.
- 16) Davis, E. and Weber, J. (1990) "Patterns and obstacles to Financial Management", Financial Counseling & planning, 3, p 3-16.
- 17) Devaney, S, "Changes in household financial ratios between 1983 and 1986: were American households improving their financial statu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4, 1993, p 31-46.
- 18) Fan, X., Chang, Y. & Hanna, s, "Optimal credit use with uncertain income",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3, 1992, p 125-133.
- 19) Hanna, s, "Optimal life cycle savings", Proceedings of the Association for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Education, 1989, p 4-12.
- 20) Hanna, S, Fan, J, Chang, R, & Bae, M.K, "Emergency fund levels of households", Proceedings of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1993, p 215-222.
- 21) Lytton, R., Garman, E. & Porter, N, "How to use financial ratios when advising client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 1991, p 3-23.